

가구소비실태조사를 대체할 가계자산 작성에 관한 연구

2004. 12.

<마크> 통 계 청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2004년도 연구과제인 「가구소비실태조사를 대체할 가계자산 작성에 관한 연구」의 연구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년 12월

통계연구과장 최 봉 호

연구자 : 최 정 수
박 소 현

요 약 문

과 제 명	가구소비실태조사를 대체할 가계자산 작성에 관한 연구		
중심단어	가계자산,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내구재, 행정자료		
연구기관	통계기획국 통계연구과	연구자	최정수, 박소현
연구기간	2004. 10. ~ 2004. 12.(3개월)		
<p>가계자산은 저축, 부채 등 금융자산과 주택, 건물, 토지, 내구재 등 비금융자산(실물자산)으로 구분 된다. 가계자산의 주요 조사결과 는 자산 분배효과, 국민생활수준 측정 등 정책적 활용, 국민계정의 자 금순환표 작성, 그리고 국부통계의 가계자산추계 기초자료 활용과 무 보수 가계위성계정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된다.</p> <p>우리나라의 가계자산의 구성을 보면, 비금융자산 비중이 87%, 금융자산이 13%를 차지하여 선진국에 비해 비금융자산 비중이 월 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p> <p>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 본다. 그리고 가계자산과 관련된 국내 조사로서 통계청의 가구소비 실태조사,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와 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생활 실태조사의 조사방법과 조사항목을 분석한다. 다음에는 국외의 가계 자산 연구 및 조사동향을 LWS(Luxemburg Wealth Study) 참여 국 가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가계자 산 관련 조사현황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작성방안을 제시한다.</p>			

목 차

제1장 검토배경, 연구목적 및 활용	1
제1절 검토배경	1
제2절 연구목적	2
제3절 주요 조사결과 활용	2
제2장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구성	7
제1절 가계자산의 정의	7
제2절 가계자산 구성의 특징	7
제3장 국내·외의 가계자산 관련 조사현황	10
제1절 국내 가계자산 관련 조사	10
제2절 외국의 가계자산 관련 연구 및 조사	13
제4장 가계자산 작성방안	28
제1절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일부항목 개선	28
제2절 부가조사와 행정자료 활용	29
제3절 비금융자산만 조사	30
제 5장 향후과제	30

표 목 차

<표1> 가계 생산계정	6
<표2> 우리나라 가계자산 구성	7
<표3> 한국 및 주요 선진국의 가계자산 구성	8
<표4> 한국 및 주요선진국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	8
<표5> 거주 형태별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 비중	9
<표6> LWS 참여 국가 및 기관	14
<표7> LWS 참여국가의 가계자산 관련 자산 구성	15
<표8> 가구용 설문서	21
<표9> 개인용 설문서	22
<표10>GSEP 표본수 변화과정(1984~ 1990)	23
<표11>BHPS의 주요 주제	24

제 1장 검토배경, 연구목적 및 활용

제 1절 검토배경

분배구조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Income)과 함께 중요한 정보로 가구 혹은 개인의 부(Wealth)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적으로 소득분배에 관련된 분석은 외국과 비교할 때 양호한 편이나 부의 분배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부의 분배에 관한 분석은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추측에 의해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소득에 의한 부의 창출보다 건물, 주택 등 부동산관련 자산에 의한 부의 창출이 개인 혹은 가구의 부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따라서 부의 분배가 계층별로 불균형을 가져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책입안자나 연구자들이 부에 관한 통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가구의 소득과 부(자산)에 대한 정보가 서로 연결되어 소득과 부의 분배구조를 종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¹⁾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기초자료로는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5년 주기로 작성하는 가구소비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부터 매년 작성하는 노동패널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5년 주기로 작성하는 국민생활실태조사가 있다. 단 국민생활실태조사는 저소득층의 소득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용되며, 조사결과는 발표하지 않는다.

각 조사의 문제점은, 가구소비실태조사는 가계조사와 부분적으로 조사대상의 중복과 5년 조사주기로 인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는 표본이 도시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국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민생활실태조사도 저소득층의 빈곤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만 제공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통계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1) 소득과 부의 분배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자료가 비교 가능하도록 연구그룹이 구성되었는데,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LIS(Luxemburg Income Study)와 최근 가구의 부의 분배의 중요성 증가로 새롭게 캔버라그룹에서 논의가 되어 구성된 LWS(Luxemburg Wealth Study)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3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제 2절 연구 목적

가계자산과 관련되어 정부통계로서 유일한 가구소비실태조사는 전국의 가구 소득, 소비 및 자산보유실태를 조사하여 가구의 생활수준 및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목적으로 1991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제 4회 조사를 앞두고 있으나 가계조사의 조사대상 및 공표범위 확대에 따라 가구소비실태조사 실시의 실효성이 부분적으로 감소됨으로써 이에 대한 실시방안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가구소비실태조사결과와 기존 가계조사결과와의 불일치에 따른 정부작성통계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 5년 주기로 인한 시의성 문제, 조사가구의 응답부담과 많은 시간과 비용의 투입이 발생함에 따라 조사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개선에 대한 방향성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가구소비실태조사의 현황을 파악한 후, 가계자산 및 부채, 내구재 관련 조사항목이 포함된 타 기관, 즉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와 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생활실태조사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또한 최근에 결성된 부의 분배에 관한 국제적인 연구모임인 LWS(Luxemburg Wealth Study)의 참여 국가를 중심으로 자산관련 통계 연구 및 작성방법을 살펴보고 이외 주요 선진국의 부의 분배에 관련된 가계자산조사를 검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통계 작성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3 절 주요 조사결과 활용

가. 정책적 활용

정책적 활용 측면에서 가계자산 통계는 국민생활수준 측정, 자산 재분배 효과 및 재정투자효과 측정과 국민계정의 자금순환표의 금융자산 추계 기초자료 및 GDP 추계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자산 구성에서 비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나. 국부통계의 가계자산추계에 기초자료로 활용

우리나라 국부통계 추계의 분류는 제도부문별 분류와 경제활동별 분류로 이루어졌다. 제도부문별 분류는 1) 법인기업, 2) 금융기관, 3) 일반 정부, 4) 민간비영리단체, 5) 개인 등 5개 부문으로 분류되며, 경제활동별 분류는 1) 산업, 2) 정부서비스 생산자, 3) 민간비영리서비스 생산자 및 4) 가계 등 4개 부문으로 분류된다.

가계자산 추계가 갖는 유용성은, 다른 자산에 비해 가계자산액의 변동폭을 비교함으로써 경기변동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가계자산에 대한 정보와 분석은 소비수요의 변동에 대한 예측에 대해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가계자산이 국부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계자산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국부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가계자산은 기업이나 정부와 달리 회계장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조사되거나 평가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계자산의 평가가 큰 오차를 갖게 될 경우 전체 국부조사의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계자산의 유용성은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 그리고 컴퓨터,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의 기술변화에 따른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율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 국부가계자산 추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반면 가계자산 추계가 어려운 점은 가계자산의 특성상 자산의 성격이 매우 다양할 뿐 만 아니라 스타일이 자주 변한다는 점이다.

현재 국부통계 가계자산 추계에서 주택, 자동차, 가구내구재 등의 가계자산이 국부자산추계에 활용 된다 국부통계 작성은 통계청 통계분석과에서 직접 조사가 아닌 간접추계방식으로 추계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가계자산 기초통계의 부족과 기초통계의 시계열 연장 문제로 가계부문 자본스톡추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 무보수 가계위성계정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국민소득계정은 총산출의 결과로 발생한 소득의 분배를 나타내주는 통계체계로서 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작성된다. 그러나 그 정보들은 유용하지만 시장과 시장거래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몇 가지 중요한 비시장 생산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시장 가계생산물은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국민계정으로부터 배제되어 왔고, 국민계정 편제자들은 시장생산에 기초한 계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순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경제활동을 더 완벽하게 계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에 회의적이었다. 그들은 계정의 포괄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지만 유용한 지표와 포괄범위는 넓지만 궁극적으로 덜 유용한 지표간의 상반관계에 있다고 생각해 왔다.

이러한 시도가 복지수준에 관심이 급증했던 1970년대에 토빈(Tobin)과 노드하우스(Nordhaus) 등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Net Economic Welfare”라는 측정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 연구는 경제복지지표를 만들기 위해 여가시간의 변화, 도시화의 불편함, 자연자원의 고갈, 인구증가의 영향 및 복지측면에서의 변화의 양상 등을 설명하도록 국민소득계정을 조정하는 시도를 했다.

‘1993 국민계정체계(SNA)’는 생산의 포괄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의 시장범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사이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위성계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위성계정은 특정 부문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더 자세하게 기록하거나 생산범위의 조정, 또는 다른 평가방법의 사용으로 계정의 기초개념을 변경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비시장 가계생산을 위한 위성계정도 가계의 시장생산물에 대해서 기존의 계정보다 더 상세히 기록하며 비시장 가계생산을 포함하도록 생산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UN의 권고에 따라 기존 SNA에 포함되지 못하는 가사노동부문의 생산을 위성계정의 형태로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무보수 가사노동 위성계정 편제의 주요 목적은 가계가 단순히 소비의 단위가

아닌 생산의 단위라는 것을 인정하여, 가계생산과 그로 인해 창출된 소득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보수 가사노동 위성계정 편제를 위해서는 주요 계정에 있는 다른 생산자와 유사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생산단위인 ‘기업’생산자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와 같은 중간투입과 노동이나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을 나타내는 부가가치를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생산범위를 확장시켜 가계를 서비스 생산자로 인식한다면, 가계는 단지 (시장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가계구성원이 소비하는 장소만이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또 다른 장소로 재정의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소비단위로서 가계부문의 최종소비지출은 최종생산물 산출과정에 투입되는 투입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계의 ‘식사준비’에 사용되는 밥솥과 구매한 쌀은 가계부문의 최종소비지출 항목이 아니라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소비와 생산과정의 원재료 투입인 중간소비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때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에 포함되는 것은 식사의 구매이며, 주요 추가비용은 무보수 노동에 대한 귀속가치가 되며 가계생산을 통해 산출된 귀속된 소득은 혼합소득으로 측정되는데, 이는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생산에서 사용된 자본소비에 대한 수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가계최종소비지출에 포함된 재화와 서비스는 생산과정에서 그들의 사용에 따라 분할되는데, 생산에 사용된 비내구재와 서비스는 중간서비스로 내구재는 자본소비로 분류한다. 자본소비를 생산요소로 포함시키는 기본원칙은 시장부문 생산계정에서는 내구재와 같은 설비에 대한 지출을 소비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 따라서 기계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주택, 자동차, 가정용 내구재 등을 포함한 자본재는 중요한 투입요소이기 때문에 가계부문 생산을 기존 SNA의 체계와 같은 맥락에서 계정을 편제하고자 할 때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높여주는 내구재에 대한 자본소비는 소비의 개념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 표 1 > 가계생산계정

사 용	자 원
중간 소비 (가계생산에서 사용되어 가계가 획득한 비내구재와 서비스)	총 산출 (생산된 모든 가계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가정부에게 지급한 임금 (고용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실질 임금)	
고정자본의 소비 (가계생산과정에서 사용된 가계내구재의 가치저하)	
생산에 대한 세금(-보조금) (가계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받은 지급을 이전)	
혼합소득(잉여)	
총 사용	총 자원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2001), p 27.

제 2 장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구성

제 1절 가계자산 정의

가계자산은 통상 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으로 구분되고 비금융자산에는 일반적으로 내구재, 거주목적 및 거주목적 외 부동산이 포함한다. 금융자산은 수익률의 위험도에 따라 안전 금융자산(safe financial asset)과 위험 금융자산(risky financial asset)으로 구분되고 안전금융자산에는 현금보유, 은행예금 및 채권을 포함하며 위험금융자산에는 가계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주식 등을 포괄한다(Guiso et al (2002), Household Portfolios, MIT Press).

제 2 절 가계자산구성의 특징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은 주택 등 비금융자산에 비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실정이며, 자산구성에 있어서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자산 비중이 줄어들고 주택관련 비금융자산(주택자산+전월세보증금)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등 가계의 주택자산 집중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표 2 > 우리나라 가계자산 구성

(단위: %)

자 산 종 류	1993	1995	1997	1999	2000	2001
· 금 용 자산	24	22	22	19	17	17
· 비금융자산	76	78	78	81	83	83

자료: 유경원(2004), 우리나라 가계의 예비적 자산선택행태에 관한연구, 한국은행
주: 대우가계패널(1993-97),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1999-2001) 이용
비금융자산에는 거주부동산 및 전세금 포함

우리나라의 가계 금융자산에 비해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금융자산이 전체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40% 정도로 우리나라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 표 3 > 한국 및 주요선진국의 가계자산 구성

(단위: %)

	한국(2001)	독일(1997)	미국(1998)	네델란드(1998)
· 금융 자산	17.0	28.0	40.0	27.6
· 비금융자산	83.0	72.0	60.0	72.4

자료: 유경원(2004)에서 인용

주: 우리나라의 경우 비금융자산에 거주용 주택자산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기타 선진국은 거주용 주택자산 이외에도 비거주용 주택자산 및 내구재를 포함

<표 2-2>에서 우리나라 가계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거주용 주택자산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이므로 주요 선진국처럼 비거주용 주택자산 및 내구재도 포함하면 그 비중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 가계와의 격차는 보다 확대될 수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비중이 낮은 이유는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기대를 반영한 가계의 높은 주택 선호현상에 주로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가계는 금융자산 보다 주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주택 실수요 계층인 30~40대의 인구증가로 인해 총 주택수요가 계속 늘어난데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을 주요 선진국 가계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가계의 안전 금융자산(현금, 예금 및 채권)의 비중은 69.9%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반면, 위험 금융자산(주식 및 투신) 비중은 6.8%로 일본(8.0%)과 대체로 비슷하나 독일(20.1%) 및 미국(43.3%)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 표 4 > 한국 및 주요선진국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현금 및 예금	59.7	56.2	13.9	36.7
보험 및 연금	17.8	29.1	29.7	27.2
채 권	10.2	2.9	10.3	10.8
주식출자금	6.8	5.9	30.8	8.5
투 신	-	2.1	12.2	11.6
기 타	5.5	3.8	3.1	5.2

주: 한국(2001.3월 말), 주요선진국(2002년 말)

자료: 한국금융연구원(2004), 미국, 일본, 독일의 가계부분 금융자산 보유구조 비교

한편 주택을 소유한 가계일수록 금융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위험 금융자산 보유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임대가계의 경우 장래 주택구입을 위해 예금 등 안전 금융자산을 주택소유 가계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다.

< 표 5 > 거주 형태별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비중

(단위: %)

	자 가			임 대		
	1999	2000	2001	1999	2000	2001
예 금	40	56	75	49	63	80
주 식	8	6	5	6	4	3
보 험	50	33	16	40	29	12
기 타	2	5	4	5	4	5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년도

제 3 장 국내·외의 가계자산 관련 조사 현황

제 1절 국내 가계자산 관련 조사

가.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조사목적은 전국 가구의 소득, 저축·부채 및 내구재 보유실태 등 가계자산에 관한 심층조사를 통해 전 국민의 생활수준과 소득·소비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경제·사회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조사항목을 보면, 가구원 및 주거 등 가구의 일반사항으로 총 가구원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사항, 거주구분, 주거전용면적 등 4개 항목이 있으며 지출관련 항목은 소비지출, 타 가구 송금보조, 조세, 지급이자, 소득세·연금기여금·사회보험료 이다. 가구내구재는 주요 가구내구재보유수량 및 연도별 구입수량으로 세부적인 내구재별 수량조사를 하고 있다.

저축 및 부채관련 항목은 저축항목별 적립/불입/투자금 총액, 차입방법별 부채 등 2개 항목이다. 부동산관련 항목은 입주형태별 부동산 평가액, 현 거주 주택이외의 부동산 소유여부 및 평가액, 임대보증금여부 및 금액 등 3개이다. 마지막으로 소득관련 항목은 근로 및 사업소득(사업소득, 농림·축어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 27개 항목이다.

가구내구재	침대, 소파, 장롱, 식탁, 냉장고, 김치냉장고, 가스오븐렌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세탁기, 의류건조기, 에어컨, 온풍기, 정수기, 진공청소기, 칼라 TV, VTR, 오디오, 비디오카메라, 피아노, 휴대용전화기, PC, 노트북, 오토바이, 골프세트, 스키세트, 승용차(경차, 소형, 중형, 대형)
저 축	요구불예금, 적금·부금, 저축성보험, 목돈예금, 목돈예탁, 주식, 채권, 개인연금, 갯돈 불입금, 빌려준 돈
부 채	금융기관 대출, 직장대출, 사채, 현금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계단 후 불입해야할 총액, 외상 및 할부액, 기타
부동산	토지, 주택, 건물, 분양계약금/중도금납부액

나. 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는 국내유일의 노동관련 패널조사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자료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자료이다. KLIPS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5,000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6차 조사(2003년)까지 완료하였다. 노동패널조사는 매년 동일한 가구와 가구원에 대한 동일한 조사를 반복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원표본 가구 유지율이 매우 중요한데,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2차년도(1999년) 88%, 3차년도(2000년) 81%, 4차년도(2001년) 77%, 그리고 5차년도(2002년) 76%로 나타났다.

KLIPS 자료는 크게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 가구용 자료와 가구에 속한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한 개인용 자료로 구분된다. 가구용 자료의 내용은 가구원의 인적사항, 변동 가구원 관련사항, 가족관계와 세대간 경제적 자원교류, 주거상태, 자녀교육과 보육, 가구의 소득과 소비, 가구의 자산과 부채, 가구의 경제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항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주택, 건물, 임야, 토지
자산 및 부채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저축성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빌려준 돈, 금융기관 부채, 비금융기관 부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 임대보증금, 미리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개인용 자료는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고용상의 특성, 근로시간,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 구직활동, 노동시장 이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LIPS의 표본틀을 살펴보면,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고특)에서 사용한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표본조사구인 전국의 21,938조사구 중에서 제주도의 263조사구를 제외한 21,675조사구를 1차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군부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도시지역의 조사구가 표본들이며, 모집단은 전체 도시 조사구(시의 동부 + 시의 읍면부)에 거주하는 가구이다.

패널자료의 장점은 횡단면자료(cross-section data)의 특성(일정한 시점에 서 각각 표본들이 어떤 값을 갖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로 미시적인 경제분석에 주로 사용)과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의 특성(주어진 표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값을 갖는지에 대해 동태적인 변화를 보여줌)을 지닌다. 따라서 노동패널자료는 횡단면 자료로는 파악 할 수 있는 장점인 시간의 경과 혹은 정부정책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 또는 가구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양식이 어떻게 변화해나가는지에 관한 동태적 변화를 포착할 수 있으며, 횡단면 자료로서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간의 변이과정, 특정기간효과, 특정연령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표본추출, 설문지 구성 등과 같은 조사 설계가 결정되면 조사가 진행되는 한 이를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준비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조사대상인 표본이 결정되면 패널조사가 진행되는 한 동일한 표본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나, 표본유지 및 관리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설문내용이 방대하며 내용 또한 개인의 소득, 고용상태 등 민감한 사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원들이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자료의 DB화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1개년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총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

KLIPS의 현장 실사는 전문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가 1차년도 부터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조사기간은 5~9월까지 약 5개월 정도 소요되고 100여명의 전문 면접원이 투입된다.

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생활실태조사

국민생활실태조사는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조사 자료로 전 국민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현재 5년의 조사 주기를 향후 3년 조사 주기로 변경할 예정이며, 주요 조사 내용은 생활비 지출, 소득, 부채 및 이자, 주거 사항, 재산 등 이다.

재산 및 부채	주택, 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 총 부채액 및 이자
내구재 보유여부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휴대용 전화기, VTR, DVD, PC, 자동차

제 2절 외국의 가계자산 관련 연구 및 조사

가. 소득과 부의 국제간 자료비교를 위한 연구그룹

(1) LIS (Luxemburg Income Study)와 캔버라그룹

소득분배통계는 각국의 통계청이 가계의 계층별 소득, 소비의 분배구조를 파악할 목적으로 서베이를 통해 작성하려는 사회통계의 일종이다. 계층별 소득 분배통계 작성을 위한 가계소득의 측정은 1996년 ‘UN 통계위원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UN 통계국에 의해 점진적으로 개발하였다.

1977년에 UN은 ‘가계의 소득, 소비 및 축적의 분배통계에 관한 잠정적 지침(Provisional Guidelines on Statistics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Consumption and Accumulation of Households)’을 발표하였으나 국제적 소득분배통계 기준으로서 광범위하게 이용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에 UN 산하 유럽경제위원회(UNECE), OECD, Eurostat 등이 1977년 지침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소득분배통계의 국제간 비교정도를 제고하기 위해 1983년에 ‘Luxemburg Income Study(LIS)가 설립되어 가계소득의 개념 및 정의의 표준화 작업과 각국의 가계소득 통계자료의 수집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LIS는 1983년 이후 만들어진 유럽, 미주, 호주 등 25개국의 비영리 협력 연구 프로젝트로서 각국 통계청 및 관련 연구기관, 대학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회원국은 호주, 캐나다, 미국, 멕시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대만 등 25개 국가 이다.

또한 가계 소득과 관련하여 1996년부터 'Canberra Group' 이라는 비공식 전문가모임(위성그룹)이 발족되어 각국 통계청들이 가계소득 측정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개념적, 실무적 문제들을 논의하였으며(1996, 1998, 1999, 2000년의 4차례 회의 후 해체됨) 가구소득통계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다(Export Group on Household Income Statistics, 2001).

(2) LWS(Luxemburg Wealth Study)

LWS는 LIS 연구처럼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가계자산 미시자료의 상호 비교를 위해 최근 조직된 연구 그룹이다. 참여 국가는 캐나다, 사이프로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 6개 국가 8개 기관이고, LWS는 향후 국가 간의 자산 개념 및 정의, 샘플디자인, 국민계정과외조사결과 비교 등의 연구를 통하여 향후 LWS 매뉴얼 작성을 계획하고 있다.

< 표 6 > LWS 참여 국가 및 기관

국 가 (기 관)	조 사 명	조사 주기	표본 규모	응답율
캐나다 (Statistics Canada)	Survey of Financial Security (SFS)	1999	16,000	80%
독일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German Socio-Economic Panel Study (SOEP)	매년	12,000	-
이탈리아 (Bank of Italy)	Survey of Household Income and Wealth (SHIW)	2년	8,000	50%
영국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ing (ELSA)	매년	12,000	70%
영국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British Household Pannal Survey (BHPS)	2년	5,000	96%
미국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	3년	4,300	-

자료: 1) LWS Project: Preliminary Report on the LWS Institutional Database, 2003

2) (<http://www.lisproject.org/lws/lws-id-report18aug03.pdf>)

< 표 7 > LWS 참여 국가(기관)의 가계자산 관련 자산구성

금융자산

기 관 (조사명)	Canada (SFS)	German (SOEP)	Italy (SHIW)	UK (ELSA)	UK (BHPS)	USA (FRB)
Cash	○		○		○	
Transaction Accounts	○		○	○		○
Certificates of Deposit	○		○	○		○
Saving Bonds	○	○	○	○	○	○
Stocks	○	○	○	○	○	○
Mutual Funds	○		○	○	○	○
Retirement Accounts	○		○	○		○
Life Insurance	○	○	○	○		○
Other Managed Assets			○	○	○	○
Other Financial Assets	○	○	○	○	○	○

자료: (<http://www.lisproject.org/lws/lws-id-report18aug03.pdf>)

비금융자산

기 관 (조사명)	Canada (SFS)	German (SOEP)	Italy (SHIW)	UK (ELSA)	UK (BHPS)	USA (FRB)
Primary Residence	○	○	○	○	○	○
Other Residential Property	○	○	○	○		○
Equity in Nonresidential Property		○	○	○		○
Business Equity	○	○	○	○		○
Valuables	○	○	○	○		○
Durables	○	○	○		○	
Vehicles	○	○	○	○	○	○
Furniture	○		○			
Other Durables		○	○			
Other Nonfinancial Assets	○					○

부채 및 기타 항목

기 관 (조사명)	Canada (SFS)	German (SOEP)	Italy (SHIW)	UK (ELSA)	UK (BHPS)	USA (FRB)
Home Secured Debt	○	○	○	○	○	○
Other Residential Property Debt	○	○	○	○	○	○
Installment Loans	○		○	○	○	○
Other Lines of Credit	○	○	○	○	○	○
Credit Card Balances	○		○	○	○	○
Other Debts	○		○			○
Informal Loans to Relatives of friends	○		○	○		○
Informal Debts to Relatives of friends	○		○	○		○
Social Security Wealth	○		○	○		
Other Items	○					

나. 주요국의 가계자산 관련 조사 현황

1) 일본의 전국소비실태조사

일본의 가계조사는 매월 조사되는 가계조사보고와 5년 단위로 조사되는 전국소비실태조사가 있고 양 조사는 총무청 통계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가계조사는 우리나라 가구소비실태조사와 조사주기, 조사대상, 조사방법과 조사사항 등이 유사하다.

2) 미국의 Survey of Consumer Finances(SCF)

SCF는 3년 주기조사로 FRB가 담당하며 자산과 부채 항목 등 가구의 부의 분배에 관한 조사가 중심이고 기타 항목으로 연금, 소득, 고용 등의 조사항목이 있다. FRB는 자료요약을 FRB 기관저널 'Federal Reserve Bulletin'에 발표하며 부의 분배에 관한 자료는 자산, 부채로 구성된 대차대조표로 제공한다.

조사 항목을 보면, 금융자산은 거래계정, Certificates of deposit, 저축, 정부 및 회사채권, Publicly traded corporate stocks, 뮤추얼펀드, Retirement accounts, Cash, Life insurance, 기타 금융자산이며, 비금융자산은 수송수단(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캠핑용차, 비행기, 보트 등), 주택, 투자용부동산, 기업자산(Sole proprietorships, partnerships, corporations, other), 기타 비금융자산(예술품, 장신구, 골동품, 기타 유형자산)이다.

부채 조사항목은 Home mortgages and home equity borrowing, Installment borrowing, Personal lines of credit, Credit card borrowing, Investment real estate debt, other debt (Loans on insurance policies, loans against pension accounts, borrowings on margin accounts, other loans) 등이다.

조사방법을 살펴보면, 조사주관기관은 FRB이며, 실제 조사는 1992년 이후 시카고대학의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에 의해 수행되며,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SCF의 소득자료와 Census Bureau의 Current Population Survey(CPS)에서 얻은 소득자료의 결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표본규모, 조사표 설계,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추정방법의 상이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 결과의 방향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캐나다의 Survey of Financial Security (SFS)

캐나다의 SFS 조사는 현재까지 1999년에 1회 시행되었으며, 소득, 교육, 고용, 자산과 부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만, 캐나다 가구의 부(자산)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고 나머지 조사항목은 참고자료로 이용한다. SFS조사는 소득분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동소득패널조사(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와는 별도로 조사된다. 양 조사는 캐나다 통계청 소득통계과에서 주관하며 모집단은 인구통계를 이용한다. 샘플규모는 16,000 가구, 그리고 조사방식은 인터뷰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조사결과의 특징을 보면, 1999년 자산조사는 응답율이 80%를 보였다. 자산자료가 소득자료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지는데 이러한 원인은 자산과 부채 자료는 다양한 통로, 즉 다양한 은행계정 및 투자자료로부터 조사되지만 소득자료는 단일통로로 조사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계정의 금융 및 자산계정과 가계에 기초한 자산계정을 비교하면, SFS는 국민계정 자료에 비해 특히 금융자산과 부채에서 과소로 나타나는 반면, 소유주택, 교통수단 등 비금융자산 자료는 국민계정상의 비금융자산에 비해 자료의 질이 좋게 나타난다.

SFS조사의 조사항목을 보면,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그리고 부채에 걸쳐 조사되고 있으며, 특히 실물자산항목 중 가구내구재를 귀금속, 전자제품, 가구 등 내구재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 내구재 자산액만을 기록하도록 조사표를 설계하였으며, 승용차, 트럭 등 교통수단은 별도의 조사항목으로 생산회사명, 자동차모델, 구입년도, 기대예상가격등을 조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가구내구재는 가구, 전자제품, 피아노, 승용차 등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보유수량과 연도별 구입수량을 조사한다. 자산가치로서 가구내구재 자산이 건물, 주택 등의 실물자산에 비해

자산의 가치 비중이 감소함을 고려해볼 때, 세분화된 품목으로 이루어진 조사표는 조사대상에 대한 응답부담과 유용성이 떨어진다.

4) 이탈리아의 Survey of Household Income and Wealth(SHIW)

SHIW는 1960년대 이후 조사되었지만, 실제적인 데이터는 1990년대 이후 제공하고 있다. 샘플 가구 수는 약 8,000 가구이며, 조사항목은 크게 주택, 금융자산과 소비내구재 등이다. 주요 통계적인 문제는 지리적으로 부(자산)의 편차가 심해 이로 인한 부분적인 샘플 오차, 과소 응답율, 그리고 약 50%의 무응답이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5) 독일의 German Socio-Economic Panel Study(GSEP)

독일은 유럽에서 최초로 1984년부터 가구패널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인구 및 소득통계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GSEP는 교육, 고용, 자산 및 정부정책에 관한 개인의 신념 등을 조사하여 패널데이터를 작성하고 있다. 동독지역을 포함한 GSEP는 통일 후 구동독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참고자료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GSEP는 국립경제연구기관의 하나인 DIW(Deutsch Institut fuer Wirtschaftsforschung)의 주관 하에 프랑크푸르트, 만하임, 그리고 베를린대학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실제조사는 유일한 학술조사 전문기관인 Infratest라는 민간조사기관에 의해 수행하고 있다.

GSEP의 설문서는 경제학적 접근방법과 사회학적 접근방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가구라는 맥락 하에 개인의 경제활동을 파악하며, 또한 횡단면 분석과 장기분석(longitudinal analysis)을 결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매년 반복되어 질문하는 주요 설문 주제로는 인구학적 변수, 노동시장과 실업, 소득, 조세, 사회보장, 주거, 자산 및 부채, 내구재 보유 현황, 건강, 교육 및 직업훈련, 가구당 경제적 산출량, 기본적 가치 및 지향하는 방향 등 이다. 또한 GSEP의 설문서는 매년마다 특별한 주제를 포함하고 자세하게 설문하고 있는데 연도별 특별주제는 다음과 같다:

1984	직업경력
1985	혼인사 및 가족사
1986	사회적배경, 직업경로, 주거환경
1987	사회보장, 은퇴, 자녀양육
1988	자산 및 부채
1989	교육 및 직업훈련
1990	시간활용 및 선호
1991	가족과 재정적 지원
1992	사회보장
1993	노동시장

GSEP는 가구용설문서와 개인용 설문서를 분리함으로써 가구구성원에 대한 측정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가구용 설문서의 응답자는 가구주이며 전년도 표본가구와 새로운 표본 진입가구를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가구용 설문서 표지에는 각 가구의 주소 및 가구원 성명, 특징 등의 가족 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다. 개인용 설문서의 응답자는 만 16세 이상의 모든 가구 구성원이며, 여기에서도 전년도 표본가구의 가구원용과 새로이 표본으로 진입한 가구의 가구원용이 각기 녹색과 청색 설문서로 구분되어 사용한다.

< 표 8 > 가구용 설문서

1. 가구 구성	- 가구 구성원의 변화
2. 주거 구성	- 주거지 형태 및 규모 - 주택소유 형태
3. 이웃	- 이웃과의 교류 정도 - 주변 환경 평가
4. 주거비용	- 세입자용: 월세, 주거비용 보조 여부 - 자가 소유자용: 자가 취득방법, 주택관련 지출
5. 가구소득, 자산 및 이전소득	- 정부보조금, 월 가구 순소득, 자산

< 표 9 > 개인용 설문서

1. 근로참여자 - 현재 고용상태 - 과거 1년간의 고용	10. 교육 및 직업훈련
2. 직업이 있는 자 - 현재의 직업에 관한 사항	11. 시간활용
3. 실직, 실업, 구직자 - 가장 최근의 직장 - 미래의 취업계획	12. 건강
4. 향후 5년간 일하길 원하는자 - 원하는 주간 근무 시간수	13. 삶의 만족도
5. 50세 이상이며 직업이 있는자 - 직업 경력	14. 정치적 선호
6. 지난해 동안의 근로소득 및 이전소득	15. 사회보장
7. 은퇴 및 연금	16. 사회적 배경
8. 세금	17. 인구학적 특성
9. 정부 및 기타 보조금	

GSEP의 표본을 추출하는데 사용된 표본 틀은 1982년의 ADM(독일 시장연구소)의 테입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단계추출 방법으로 584개의 표본 포인트를 선정한다. 추출된 표본 포인트를 대상으로 면접원들이 주소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통추출 방법에 의해 한 조사구(84가구)에서 약 12개의 표본대상가구를 선정한다.

표본탈락률은 웨이브가 거듭됨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가 및 호인 등에 의해 신규 표본가구로 진입한 가구 중에서 응답률은 1987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88년에 상당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88년의 조사주제가 '자산 및 부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응답률에 민감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표 10 > GSEP 표본수 변화과정(1984~1990)

구분	표본가구수	표본개인	전년도 응답가구 중 응답률	새로운 표본진입 가구 중 응답률
1984	5,921	12,245	-	
1985	5,322	11,090	88	70.8
1986	5,090	10,646	91	78.6
1987	5,026	10,516	94	82.4
1988	4,814	10,023	92	76.3
1989	4,690	9,710	93	83.1
1990	4,640	9,522	94	76.8

6) 영국의 British Household Panel Study(BHPS)

영국의 가구패널조사는 5년 주기로 조사되며 조사 시작년도는 1991년이다. 조사주관은 University of Essex에서 담당하며 표본규모는 5,000가구, 10,000명의 개인이며 설문내용은 가족구성, 주거지, 소득, 자산 및 부채, 교육, 고용, 건강, 사회경제적 가치 등 이다.

BHPS는 영국의 정치·사회·경제구조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21세기 영국의 정치·사회·경제구조를 예측함으로써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BHPS는 Essex대학의 ESRC 사회미시변화연구센터(ESRC Research Centre on Micro-social Change)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동 프로젝트에는 경제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통계학, 인구학, 지리학, 그리고 컴퓨터와 정보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BHPS의 실제조사는 민간 상업기관인 NOP Market Research Ltd.가 수행하며, ESRC 센터에서는 민간의 상업적 조사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NOP에서 고용하는 조사원의 자격을

엄격히 하고, 조사원에 대한 교육은 NOP와 ESRC센터에서 공동으로 실시한다. 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화조사는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응답거부로 보고할 수 있는 가구는 최소한 여섯 번의 전화와 세 번의 편지발송을 통한 설득에도 거부당한 경우로 제한하고, 완성된 설문서의 5%를 ESRC센터가 직접 검증하는 등 엄격한 규칙이 주어지고 있다.

BHPS 설문서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추세를 연구하는데 적합하도록 구성되었다. BHPS의 설문서는 가구용 설문서 및 개인용 설문서로와 아울러 자기기입 설문서와 대리 설문서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구용 설문서는 가구원 중에서 주거상황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가구원이 응답하며, 개인용 설문서는 만 16세 이상의 모든 가구 구성원이 응답한다.

자기기입 설문서는 면접조사를 마친 모든 가구 구성원이 기입하며, 대리 설문서는 선원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있는 가구원이나 지나친 고령으로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대신 응답하는 설문서이다. 대리설문서는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없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네 번 이상의 접촉시도가 있어야 허용된다.

< 표 11 > BHPS의 주요 주제

1) 가구 動學	- 가구구조의 변화; 가구 형성과 해체의 원인 및 결과 - 가구경제 의사결정 - 가구소비 양식
2) 노동시장	- 직업이동, 노동시장 구조
3) 소득과 부의 분배	- 생활수준의 변화 추이 - 생활주기(life cycle) 효과 - 소득과 가족 구성 - 부의 축적과 지출
4) 주거	- 주거비용 - 주거 이동의 원인 및 결과
5) 건강	- 건강과 가구 경제와의 관계 - 의료서비스의 이용 실태와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불평등 - 가구원의 건강 상태와 질병의 종류
6)사회경제적가치	-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치(행위)와의관계

가구용 설문서

1) 주거 상태	- 현주거지의 소유형태 - 현주거지의 소유방식 (완전소유 혹은 담보/대출에 의한 소유) - 세입자인 경우: 세입액(주거비 포함) 및 세입액의 기간
2) 소비지출	- 내구재 및 자가용 소유 여부 - 생활비용

개인용 설문서

핵심사항(core)	
이웃과 개인의 인구학적 정보	출생지, 주거지, 가정과 이웃에 대한 만족도, 이사의 이유, 인종, 교육적 배경과 학력, 최근의 교육경력, 결혼상태의 변화
현재의 고용상태	고용지위, 직업, 직장탐색행위, 직업/임무, 근무지, 직장규모, 직장까지의 교통수단, 이용하는 교통수단, 근속년수, 근무시간/초과근무시간, 노동조합원 여부, 전망과 직장교육, 연금계획, 일에 대한 태도, 임금 또는 수입에 대한 만족도, 보육시설
재무관련	수당, 연금, 임대료, 이자, 배당금 소득, 연금계획, 저축과 금융 자산 투자, 결혼만족도, 소비자 신뢰, 내외부의 소득이전, 배우자의 역할, 가구지출의 운영, 육아, 자동차 소유 및 사용, 차의 가치, 면접 시 특이사항
건강과 보살핌	개인의 건강상태, 일에 대한
고용역사	
가치와 의견	
순환핵심사항(rotating core)	
건강과 보살핌	의료비와 의료비 지급에 대한 태도
가치와 의견	부의 분포, 사회정의, 정부의 기능과 역할, 환경, 개인지출 등

자기기입 설문서

1. 최근 몇주간의 생활
2. 가족과 집밖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일
3. 생활에 지원 혹은 도움을 준 사람

대리 설문서

1. 이웃과 개인의 인구학적 자료
2. 건강과 보살핌
3. 고용

BHPS 표본은 1차 웨이브에서 목표 표본을 5,000가구와 10,000명으로 설정한다. BHPS에서는 정부의 우편번호 주소파일(Postcode Adress File: PAF)을 표본 틀로 이용하여 우편번호 지역(Postcode sector)을 1차 표본단위(Primary Sampling Unit, PSU)로 설정하여 이로부터 7,331 가구와 표본가구와 이 가구 내의 16세 이상 10,742명의 표본을 2단 층화계통추출법으로 추출한다.

1단계는 전국을 행정구역에 의한 구분 이외에 지리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18개의 하위 지역으로 나누며, 이 18개의 지역을 다시 1981년 센서스자료에 근거한 사회경제적인 지표(취업가구의 비율, 연금수령 인구비율- 여자 60세 이상, 남자 65세 이상 -, 농업종사자 인구 비율 또는 1인 가구의 연금 비수령자비율)에 의하여 각 지역을 층화한다.

1차 층화의 기준은 PSU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가구주의 비율이며 이 비율에 따라 지역별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다음 2~3개의 주요층으로 나눈다. 2차 층화의 기준은 연금수령인구의 비율이며 비율에 따라 각 지역의 주요층별로 재정리하여 각 주요층을 2개의 하위층으로 나누고 있으며, 하위층은 다시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농업인구수 비율,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1인 가구의 연금 비수령인구 비율에 따라 재정리한다. 마지막으로 계통 추출 방법에 의해 250개의 PSU를 추출하며, 최종적인 표본가구의 선택은 면접원이 조사를 수행할 때에 결정하는데 PSU 내의 시작지점으로부터 추출된 시작지점

내에 있는 3가구까지는 모두 표본가구로 추출하고 4가구 이상이면 임의 추출 방법에 의해 3가구만을 표본가구로 추출한다.

2차 웨이브에서 표본탈락률은 12.3%를 기록하여 다른 패널조사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탈락률을 기록하였으나 3차 웨이브에서는 9.7%, 4차 웨이브에서는 5.1%, 5차 웨이브에서는 5.2%를 기록하여 다른 패널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4차 웨이브부터는 안정적인 표본탈락률을 기록하였다.

제 4장 가계자산 작성방안

가구소비실태조사를 대체할 가계자산 작성방안에 대한 의견을 통계연구과 주관 하에 진행된 경제·사회통계 관련분야의 연구자모임(2004년 11월 말)과 KDI,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조세연구원, 대학 등 소득·자산분배 관련 전문가에게 E-메일과 방문을 통해 수렴(2004년 12월 초)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부전문가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소득의 원천인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자산통계가 필수적인 데 기초통계 자료가 없어 부의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따른다고 하였다.

부분적으로 현재 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가계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항목이 있으나 표본이 도시지역에 국한된 한계가 있으며, 또한 정부의 공신력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활용하는데 무리가 따른다고 한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정부의 공식통계에 대한 필요성이 요청되며, 날로 이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가능한 빠른 시일에 전체적인 가계자산을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유일하게 자산 항목을 공표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자산 및 부채 조사항목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조사응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조사 응답율이 부실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외부전문가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기존의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유지가 최선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가계조사와의 중복성 등)이 발생할 경우 조사항목의 축소 혹은 개선으로 시계열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제 1절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일부 조사항목 개선

기존 가구소비실태조사는 유용성이 매우 높고 시계열 확보 차원에서 매우 좋은 자료이나 가계조사의 전국조사로의 확대에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가계조사와 중복되는 소득과 지출항목을 대폭 줄이고 자산항목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이용자에게 자료제공 시 자산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며 나머지 조사항목은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조사항목이 개선된다면, 일반적으로 소득조사에 비해 자산조사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조사항목의 대폭 축소를 인하여 가구의 응답율이 기존조사 때보다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사주기도 현재 5년에서 2~3년 주기로 단축하여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른 자산구조의 현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국부통계 가계자산소득 추계에 필요한 내구재별 항목을 세부적으로 내구재별 수량조사만 하지 말고 가구 내구재와 교통수단으로 내구재를 이원화하여 금액 베이스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사할 때, 국부통계의 가계자본소득 추계와 무보수 가계위성계정 작성에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캐나다의 가계자산조사과 이탈리아의 가계자산조사에서 볼 수 있다. 즉, 총 내구재 자산액과 교통수단별 구입년도, 기대예상가격 등의 조사항목을 별도로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다.

제 2절 부가조사와 행정자료의 활용

가계자산에서 금융자산 부분은 기존의 가계조사에 부가조사로 실시하고 있는 저축·부채 등 금융자산 조사를 2년 주기로 진행하며, 이와 더불어 비금융자산 중 내구재는 내구재 조사방법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액베이스로 변경하여 특별 부가조사를 실시한다.

금융자산조사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일반시중은행 등 금융권의 금융자산 및 금융 소득자료를 제공 받아 실제조사 자료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이를 위하여 금융권과 금융자산의 정보공유를 위한 관련 기관간의 공식적인 네트워크 형성한다. 또한 토지, 주택, 건물 등 비금융자산은 정부의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우리나라에서 분배 불균형에 대한 실증연구를 하는데 사용한 자료는 대부분 통계청을 중심으로 생산한 조사자료 이다.

부(자산)에 대한 정보는 대외적으로 밝히기를 꺼려하는 정보이므로 면접 조사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며 면접 받

는 가구 혹은 개인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를 과소보고하려는 특성이 있으므로, 조사한 자산은 실제자산보다 낮은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 혹은 가구별로 과소보고 수준이 서로 다를 때는 조사 자료를 사용한 부의 분배불균형에 대한 실증결과는 현실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다행히 개인 혹은 국가별 부에 대한 정보는 정부부처에서 정책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 자료에 비해 정부자료가 갖는 장점과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조사 자료가 주로 표본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정부자료는 전체 모집단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표본의 대표성과 같은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정부자료는 해당 정책집행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상대적으로 정확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자료는 이미 DB로 축적되고 있어 이들 자료를 사용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관련기관의 개인 비밀보호라는 제약조건으로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므로 자료공개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 협조사항으로 처리하지 말며, 반드시 법에 명시할 수 있도록 강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에 신고 자료의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매년 공개하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한다.

현재 부동산 관련 자산 자료를 위한 행정자료는 행정자치부의 종합토지세 DB자료와 건물 분 재산세 자료이다. 종합토지세 자료는 행정자치부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하는데 사용된 연구용역에서만 부분적으로 자료 제공하고 있고 통계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행정자료의 활용을 위해서는 통계청에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통계전문가를 관련기관에 장기간 파견하여 일정비율(예: 1%)의 표본을 층화 추출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통계조정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통계청에서 행정자료 구축 팀을 신설하여 여러 기관의 행정자료를 구축 가공할 수 있도록 조직을 신설 하여야 한다.

효율적으로 가계자산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최소한의 부가조사(금융자산과 내구재)를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각 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에 마련하여야 한다.

다. 즉 먼저 청내의 부가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2년 주기로 가계자산통계를 작성하는 것이다.

제 3절 비금융자산만 조사

만일, 비금융자산에 관한 행정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부동산과 내구재 등 비금융자산(실물자산)만 조사하고 금융자산은 기존 가계조사의 저축과 부채 항목을 활용하여 2년 주기의 새로운 가계자산 통계를 구축한다. 왜냐하면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은 우리나라의 자산 구조 특성상 매우 중요하며, 정책수립 시 매우 긴요하게 이용될 자료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자산의 비중이 비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 따라 주택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조사내용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주택의 개념, 용도 등에 대한 연구가 선진국과 비교하여 빈약하며, 실제 주택의 개념이 과거의 단순한 주택에서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거처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조사항목과 주거항목에 대한 선행연구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 5장 향후 과제

최근 조사의 고비용화 및 실제조사의 어려움으로 행정자료의 활용에 대해 통계기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용 방법에 대한 연구나 실제 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의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 관련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과 이용방법을 향후 과제로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주요 선진국의 행정자료 활용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행정자료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계자산의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 국제적인 가계자산 관련 연구그룹인 LWS의 자산 연구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방문하여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의 주거개념 연구하여 조사표를 경제사회구조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http://www.kli.re.kr/30_labp/index.asp)
- [2]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2004년 국민생활실태조사
- [3] 유경원(2004), 우리나라 가계의 예비적 자산선택행태에 관한연구, 한국은행
- [4]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 [5] 한국금융연구원(2004), 미국, 일본, 독일의 가계부문 금융자산 보유구조 비교
- [6] 한국은행, 한국의 무보수 가사노동 위성계정 개발을 위한 개념 틀과 시산결과, 계간국민계정 2002년 제 1호
- [7] B. Kennickell, Wealth Measurement in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 Methodolog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http://www.bog.frb.fed.us/pubs/oss/oss2/scfindex.html>)
- [8] Bank of Italy, Survey of Household Income and Wealth 2002 (http://www.bancaditalia.it/statistiche/ibf/en_ibf.htm)
- [9] Canberra Group, Household Income Statistics manual, Ottawa 2001.
- [10] Central Bank of Cyprus & university of Cyprus, Cyprus Survey of Consumer Finances (<http://www.econ.ucy.ac.cy/~echalias/survey.html>)
- [11] DIW Berlin, 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 (<http://www.diw.de/english/sop/index.html>)
- [12] LWS, Preliminary Report on the LWS Institutional Database, 2003 (<http://www.lisproject.org/lws/lws-id-report18aug03.pdf>)
- [13] Statistics Canada, Survey of Financial Security (<http://www.statcan.ca/english/sdds/instrument/2620-Q1-V1-E.pdf>)
- [14] Statistics New Zealand, Measuring Unpaid Work in New Zealand, 2001
- [15] The Federal Reserve Board, Survey of Consumer Finances (<http://www.federalreserve.gov/pubs/oss/oss2/scfindex.html>)
- [16] University of Essex,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http://iserwww.essex.ac.uk/ulsc/bhps/>)